

2025. 12. 11.[목]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차도순 국장 010-6436-1726 / 김대경 보좌관(민병덕의원실) 010-3201-9872

'Z'들의 열망!! 10년의 기다림!!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본회의 통과 점주단체 협상력 부여로 본사와 상생구조 형성할 전환점 마련

2025년 12월 11 (목) 13:00, 국회 본청 계단 앞

- 11일(목),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후 본회의 통과
- 을지로쏘가 19대 국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첫 발의 이후 약 10년간 지속적인 법안 발의, 숱한 역경을 거쳐 민병덕 위원장 대표발의 법안으로 역사의 한 획 그어....
- 가맹점주에게 부여된 단체협상력을 통해 가맹점주와 본사간 법으로 보장된 합리적 대화 창구 마련
- 을지로쏘, 을의 단체협상권은 가맹사업을 넘어 자영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2월 11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전국의 가맹점주·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238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최민희, 권향엽, 김남근, 김현정, 박상혁, 박희승, 서영석, 송재봉, 이강일, 이병진, 이용우, 이재관, 이훈기, 정진욱, 황정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은 2015년 11월 19일 이학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들이 꾸준히 제출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민병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2025년 4월 17일에는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바 있다.

지난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그 결과 전국 35만 가맹점주와 100만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제도 개선이 또다시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통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치며 국회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이번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맹지역본부 법적 보호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 ▲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은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도 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었고,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점주들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다. 실제로 가맹사업 분쟁의 상당수가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협상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공식적·제도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 가맹사업이 상생 구조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단체들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 수위탁거래 · 중소기업 협동조합 ·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불공정 구조에 놓인 종속적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오늘의 통과는 가맹점주들의 간절한 요구와 오랜 기다림이 국회를 움직인 결과이며, 드디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공정한 가맹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 멈추지 않고, ‘을’ 들의 지난 10년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행사사진

